

간호사업의 변화와 그 계획

– 역할을 중심으로 –

田 山 草 박사

<본회회장·연세대 간호대학장>

I. 서 론

~ 간호사업의 변화와 계획을 위한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

1. 미래관

20세기의 종반에 들어선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문제가 점에 없이 갑자기 크게 사회회식 속에 부각되고 있음을니다. 간호사업도 역사적 연관에서 세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지요.

간단히 과거의 전통을 찾아야 할 일과 현재의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밀고 나가야 할 일 그리고 닥쳐오는 미래에 대처해야 할 간호사업 업무, 교육, 연구의 일 등입니다. 세가지 다 상호관련이 있지만 “未來”에 관한 문제를 실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미래는 어제의 미래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잡작스럽게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닦아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역사는 과거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미래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깊숙히 현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둘째어져 생각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지금 전연 다른 세계 속으로 치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래의 근본적인 성격은 사회의 모든

면에 걸쳐 마냥 가속되고 지수곡선적 또는 기하급수적 변화로 엄습해 온다는 데에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팽창을 보면 역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1650년에 5억이었던 세계 인구가 배가 되어 10억이 된 것이 약 1810년 다시 2배인 20억이 된 것이 1920년 그것이 또 다시 배가 하여 40억이 된 것이 현재의 1975년입니다. 처음 배가에는 약 160년 다음 배가엔 약 110년, 그다음 배가엔 55년 뒤에 걸리지 않았다.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인류 탄생 후 수만년 걸려 20억이 된 세계 인구가 만 55년만에倍인 40억이 된 그런 가속도를 가져왔으며, 지금 속도로는 40억이 다시 배가 80억이 될 추정은 다시 가속되어 약 35년 후인 2010년 전후라고 합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변화는 직선적 증대 또는 감소가 아니라 지수적 곡선을 그리며 치솟아 오르고 또는 반대로 닥바로 내려닫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급격한 가속적 변화는 비교적 눈으로 볼 수 없는 통계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축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 성장, 쇠퇴 현상을 속도로 진행하는 직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곡선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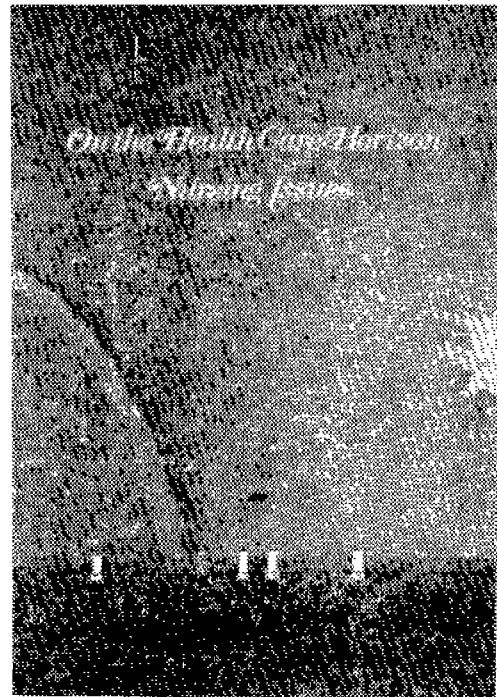
또는 가속적인 변화의 의미를 실감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결국 자원고갈, 식량부족, 공업화로 오는 환경오염 문제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침내 인구마저 2050년을 고비로 소멸의 길을 내려가게 됩니다. 이는 우울한 예측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세계의 인간의 위기는 지금부터 35년 후인 2010년부터 시작되는 셈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언”은 아닙니다. 여러 가정 위에 선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이 “위기의 날”이 불가능은 아닙니다. 되어 “이대로 간다면” 그 가능성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대로 여러 지수 푸전의 난무에 맡겨 세계 체계의 자연적 파멸, 운명의 날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교육적인 용감한 재조정, 재동원을 서둘러 지수곡선의 난무를 혁명하게 조정함으로서 인간의 위기를 피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가속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인구증가와 공업화 증진의 두 중요한 요인을 자원고갈, 식량부족 환경오염을 誘發함으로서 인간과 사회의 존립기반인 생태계에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간호사업은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민한 통찰력과 강한 책임감을 걸러 급속히 닥아오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未來社會에 일어날 여러 인간 사회 문제를 예상하고 그러한 문제의 본질과 그들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여 現代와 未來의 여러 사회문제가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 그러한 인간사회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오늘의 보건체계, 정책, 조직, 활동 등을 이해하여 보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된 변화를 가져오는데 대비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II. 간호사업의 최근 동향

가. 제16차 I.C.N 세계대회와 주제



A.J.N. Vol. 75, No. 10에서

지난 Singapore에서 개최되었던 I.C.N 의 C.N.R 회의에서 결의한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함으로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1977년 일본에서 개최될 제16차 ICN 세계대회의 주제를 “간호의 새로운 영역 (New Horizon for Nursing)”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간호사업이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를 모색해 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니다.

나. I.C.N의 간호의 정의 설정

1975년 I.C.N의 C.N.R 대회에서 결정한 간호의 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호원은 기본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끝마치고 한 국가의 면허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기본 간호교육이란 간호 실무와 특수한 능력을 개발하는 post basic education 을 위하여 폭넓고 깊은 기초를 제공하는 정신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이다.

첫째 수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시하며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동과학, 생명과학, 간호과학을 학문하는 간호원을 준비시킨다. 첫째 수준의 간호원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환자간호, 재활간호를 위해 어느 상황에서나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하고 평가하는 책임이 있고, 전장팀의 일원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간호요원에 여러 계층이 있는 국가에서는 둘째 수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첫째 수준 간호원의 감독과 협조하에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간호이론과 임상실체를 학문하는 간호원을 준비시킨다.” 이러한 정의에 덧붙여 간호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성명서도 체택하였다. 이것은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수 교육이 없이는 전문직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연수교육에 대한 성명서를 체택하게 된 것이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속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국제간호협회는 안전하며 효율적인 간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간호교육의 중요성을 확신한다. 연수교육은 간호원들의 발전은 물론 업무의 요구에 대한 해답을 준다. 진행업무에 대한 혁신의 지식, 전문화와 직업 발달에 대한 준비, 연수교육은 자아학습, 실무교육 프로그램, 정신적인 Past-basic Courses 와 대학원 교육 등과 같은 광범위한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연수교육은 소외된 지역에서 종사하는 간호원들에게도 도달될 수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모든 간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정, 승진, 보수에 의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연수 교육은 간호협회와 정부 그리고 보건기구의 협력하에 간호교육과 일반교육체계에 의해 혹은 그 체계 안에서 발전되어 질 것이다. 국제간호협회는 계속적인 간호교육에 대한 국가적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거나, 창설, 증진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을 지도하며 격려한다.”라고 제정하였다.

다. ICN의 환경오염과 간호의 역할에 대한 설명서 챕터에 관한 소개

인간 환경을 지키는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ICN의 정책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체택하였다.

인간환경의 보존과 증진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매두되었다. 거미하고 철박한 업무들이 모든 개인 및 모든 전문직에게 놓여 있는데 그 업무란 인간의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의 자원을 보존하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예기치 않은 불리한 악영향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하며 노력하는 책임을 밟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간호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장환자의 환경에 영적 요소 및 그 반대 요소를 찾는다.

—잠재적으로 해로운 화학 물질에 노출된 자료, 방사능 문제, 가장 새로운 건강의 위협 요소 및 그의 예방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일상활동에서 개인, 가족 또는 지역사회 집단에게 지식을 주고 또 지식을 적용한다.

—개인, 또는 지역사회 집단에게 환경자원의 보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환경으로 인한 건강의 위협 요소의 예방법들을 가르치고 알려준다.

—인간 주거에 존재하는 건강위협 요소와 전장간호면을 지적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 보건 당국과 함께 일한다.

—환경적 전장문제를 위한 지역사회의 활동을 도와준다.

—절차 많은 사람들이 노출하게 되는 불리한 환경을 예방하고 경고해주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연구 및 생존 및 근로조건을 항상 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에 참가한다.”

라. ICN의 포로와 죄수의 간호와 간호의 역할에 대한 성명서 챕터에 관한 소개

포로와 죄수의 간호에 있어서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ICN의 정책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체택하다. 이 성명서의 기본 원안은 다음 세 가지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제정 채택되었다.

첫째는 1973년에 개정한 I.C.N의 간호원의 윤리강령과 둘째는 1949년에 이루어진 제네바 협약 가운데 적십자와 린티와 간호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고 세째, U.N의 세계인권선언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받아들인 몇몇 항목에 나타난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다.

즉 ICN은 “죄수나 포로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해를 주는 모든 방법들의 사용을 비난한다.” 그리고 아래의 것을 덧붙여 결의한다.

최수나 포로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질병치료에 지식을 지닌 간호원들은 적절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 기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적당한 행위를 취한다. 그리고 연구의 본질과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가 이해한 후 자의로 동의했을 때에만 간호원은 최수들에게 행해지는 임상연구에 참여하여 국가적 안전이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간호원은 우선 환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이를 것을 간호원의 윤리강령에 부과할 것을 연구하는 이사회는 국제대표자회의의 인증을 받아서 간호원들이 고문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제언서를 작성하여 1977년에 열린 국제대표자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에 배부토록 가결하였다.

마. 간호원의 윤리 강령 변화

1973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I.C.N 대회에서 개정한 간호원의 새 윤리 강령의 개념은 명확하고 간결하여 범세계적이어서 세계 어떤 문화권의 간호원에게나 충분한 의미를 줄 수 있을 만큼 포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시험기간을 가져야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 장령은 간호원의 책임과 임무를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다음 1965년의 I.C.N 간호원의 윤리강령 중에서 다음 “The nurse is under an obligation to carry out the physician's orders”라는 부분은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은 간호원의 독자적 판단은 전혀 참작되지 않았으며 간호원의 개인적인 의무를 수행할 때 있어 의사에 대한 의존성을 기를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더 이상 전 세계의 간호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다음 영국 대표에 의해 제정된 “간호원은 전문직업인의 자격으로 행동할 때 항상 전문직의 명예를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구절은 받아들여져서 새 Code에 첨가되었다.

이 모든 회의 내용과 이런 새 강령의 내용은

검토해 보면 결과적으로 세 장령은 간호의 독립된 행위와 간호원과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 요구되는 협동의 두 가지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최상책이며 두 직업을 가장 유용하게 선용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1973년 I.C.N의 간호원의 윤리강령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간호의 기본 책임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회복 및 고통경감의 4가지로 본다. 간호의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간호의 본연의 자세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과 권리의 존중하는 것이며 이러한 간호는 국적이나 인종, 종교, 피부, 색깔, 연령, 성별, 정치 또는 사회적 배경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간호원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지역사회와 그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에게 보건사업 (health service)을 제공하는데 그 끝거리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바. W.H.O의 직제 개편에 관하여

W.H.O의 직제가 개편되어 금년 8월부터 W.H.O의 간호담당관실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C.N.R 회의에서 들었다.

이와 같이 기능별로 직제가 개편되어 가족계획사업, 예방사업, 결핵사업, 교육사업 및 연구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간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각기 그 부서에 누가 가장 유능하여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 사업을 발전시킬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부서 책임자는 정해질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사회학자던, 간호학자던, 의학자던 상관 없이 보건과 관련된 전문 직업인으로서 보건사업 (Health Service)의 능력자이면 일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은 모두 우리들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며 동시에 과중한 과제와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간호사업의 변화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여러분의 goal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몇 가지의 간호사업의 미래관과 간호사업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사회변화의 이론가인 Moore는 “현대의 변동

은 자연 발생적인 것과 계획된 변동과의 두 가지 근거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의 변동은 계획이나 의식적인 해신의 부수적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과거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발명이나 문화 모방 양식을 통해 인류의 문화가 시작한 이래 계획되지 않은 변화가 계속되었지만 현대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개인이나 사회의 어느 측면에서도 이러한 생각깊은 변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초연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변화가 개인 생활이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학문, 전문직업은 물론 모든 방면의 구조와 체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은 결국 모든 사회체계, 구조, 기능 또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에 걸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과정은 단순하게 쉽게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옛 것의 침해를 받아 여지없이 무너져 갈 때도 있으며 이 변화가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혼돈과 무질서한 기간이 오기도 하여 결함(gap)이 형성되기도 한다.

간호는 많은 사회체계 속에 하나의 체계이기에 사회 전체 체계 속에서 기능하고 사회나 문화변화에 따라 간호체계가 갖는 기저 기능과정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간호체계에 수정이 연쇄적으로 타체계에 나아가서는 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오늘날 간호체계 속에서는 크고 작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간호원, 의사, 명원, 행정자, 보건행정자, 환자·또는 간호사업에 관심을 가진 자는 오늘날 간호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통적인 간호사업의 손실을 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역동적 변화는 인간의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저해하는 종속적이고 침체적인 많은 보순된 점을 일소할 수 있는 필요불가결의 것으로서 바람직한 도전으로 생각

하고 있는 이가 많아졌다. 미루어 분명히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의 한 사회체계인 간호체계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겠다.

현대 간호사업은 계획된 변화가 그 변화의 특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업의 변화가 이런 계획된 변화를 기반으로 할 때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라고 해서 모두 발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비단 간호의 기술적 기능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관료적 및 관리적 기능 면에서도 요청되며 더 나아가서는 간호의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 자체에서도 전문적인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게 계획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간호체계가 우리나라 사회전체 체계의 일체로서 갖는 명확한 목적 설정이 있어야 하겠으며 임상간호 간호교육, 간호행정 각 면에 있어서도 이 설정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계획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학적인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의될 때 앞으로 간호사업은 전문직업 및 학문은 다른 분야의 사회 체계의 계획된 변화 또는 자연 발생적 변동으로부터 파생된 부산물의 압력으로 목적없이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다. 급기야는 전문직업으로서의 통합을 이를 수 있도록 질서를 잊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바람직한 전강 출판을 가지고 특행위 변화를 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간호에 있어서 사상적 및 학문적 정립이나 전문직업적 기능을 완수함에 있어서 계획된 변화는 어느 다른 사회체계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이론적 근거 및 과학적 방법을 응용함에 게을리 할 수 없음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III. 결 론

~ 간호의 역할을 중심으로 ~

오늘날 간호는 변천하는 미래를 향하여 새로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발전하고 있는 현황이다.

간호는 전강을 위협하는 모든 조건을 예방하도록 도움을 주고 질병을 예방함에 있어 조기 진단을 내리게 하여 환자로 하여금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인간의 요구를 충족 시키고 각 연령기와 환경적 여건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건강 상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또한 회복기에 있는 사람, 장기 철환자 또는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없을 경우라 할지라도 돌봄의 간호(care)는 항상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간호 독자성이 요구된다. 또한 인간의 정상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돌봄(care)이 필요할 때 이 요구에 적응하는 것이다.

간호의 대상은 항상 환자나 건강한 개인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불건강한 집단이나 건강한 집단에 광범위하고도 진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인간의 각 연령층에 있어서 일생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상태에서와 또한 사회와 환경 및 문화의 각기 다른 개인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든 상태에 있어서도 간호의 대상은 충분히 이해되고 받아 들여지게 마련이다.

간호는 다양한 인간 개개인의 지각과 행위를 이해함으로서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데 있어서나 질병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여건을 예방하는데 있어서의 또는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있어 직접적 간호의 역할 이외에 환자나 인간 스스로 각자 개인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요건을 스스로 물리치고 적응해 나감으로서 스스로 통제할의 영역까지 이끄는 역할이 또한 중요한 간호의 분야라고 하겠다.

간호는 그 단독적 득립된 간호의 영역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타 분야와 통합 협동되어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간호의 역할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가면서 그 요구도는 더욱 높아가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중요한 일원인 전문적 간호 요원은 의료 보건 요원의 팀에 참여하므로서 협력하고 활동할 때 그 전인 간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전개된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가정, 학교, 공장, 직장, 병원, 보건소 또는 각종 정부기관, 사회단체 기관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간호의 영역이라고 하겠다.

또한 오늘날 전 세계의 인간이 당면한 인구문제, 식량문제, 공업화로 오는 공해문제와 도덕적 문제는 간호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미래 간호의 역할이 여기 집중되리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전산초, 임상간호의 이론과 전략, 연세출판부, 서울, 1975
2. 전산초, “간호사업의 문제점과 미래상”, 대한간호, 제8권 제2호, pp. 14~17, 1969
3. 전산초, “간호사업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계획,” 연세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제2회 학술세미나 보고서, pp. 7~9, 1974
4. 이종익, “인간의 문제와 간호의 역할,” 대한간호, 제14권 제2호 pp. 11~15, 1975
5. 정범모, “미래”백양사, 서울, 1975
6. 김모임, “계획된 변화의 한 사업으로서의 가족계획,” 연세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제2회 학술세미나 보고서, pp. 33~38, 1974
7. 이경식, “보건사업 전달의 새로운 개념과 지역사회 건강간호 교육,”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제4회 공중보건학 연수회 보고서, pp. 3~28, 1975
8. 하영수, “간호연구의 실제와 문제점,” 대한간호학회 제1회 학술세미나 보고서, pp. 3~6, 1974. 12
9. Dr. Stewart, “지역사회 간호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계획,” 연세대학교, 간호학연구소 제2회 학술세미나 보고서, pp. 44~47, 1974. 7
10. Dr. Patricia A. Conroy, “사회 변천과 간호를 결정하는 요소, 간호학적 관점에서—,” 연세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창설기념 학술세미나 보고서, pp. 12~15, 1974. 2
11. Esther L.Brown, *Nursing for the futur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59
12. Esther L. Brown, *Part 3 Patients as People Newer Dimantion of PA. Car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1
13. D.J. Bogue, “*Principles of Demography*”, New York, Wiley, 1969
14. D.H. Meadows et.al., *The Limits to Growth: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72
15. A. Toffler, *Future Shock*, New York: Random House, 1970